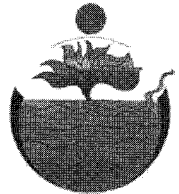




COP₈ 뉴델리 선언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



COP 8

지난 10. 23~11. 1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8차 당사국총회(COP₈)에서는 교토의정서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다수의 결정을 채택했다. 2003년 초 발효가 예상되는 선진국들 하역금 2008-2012 기간동안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의 전반적인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 170개국에서 참석한 장관 및 고위급 대표들은 회의 최종일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계시키는 「뉴델리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물 중의 하나는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메카니즘(CDM)을 완전히 작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CDM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개도국의 배출물저감 프로젝트로 연결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진국 정부에게는 교토의정서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을 제공하게 되고, 개도국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제1차 프로젝트가 2003년 1/4분기 내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기후변화협약의 최종 목표와 원칙 및 공약사항을 상기하면서, 경제·사회 발전 및 빈곤타파가 개도국 당사국들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확인한다.

기후변화협약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배출물의 상당한 감축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주는 IPCC 제3차 평가보고서 내용을 심각히 인식하면서, IPCC 보고서의 숨意에 대한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가 현재 진행 중인 검토 내용을 인정한다.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부속서1 및 非부속서1 국가에서 현재 진행 중임을 주목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기후변화협약의 조항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동시에 적응 수단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기후변화가 모든 지역에서 미래의 안녕과 생태계 및 경제진보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모든 국가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가를 포함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의 점증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같이 우려한다.

아프리카가 기후변화와 빈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인 NEPAD와 같은 개발 구상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루어져야 함을 결의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들은 그렇지 않은 당사국들도 적절한 시기에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b)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위적 변화로부터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는 국가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한다. 물론, 경제발전 자체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대책을 찾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c) 국가별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은 물, 에너지, 건강, 농업 및 생물다양성과 같은 핵심분야에서 기후변화 목표를 보다 충실하게 통합시켜야 하며, WSSD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d) 모든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 그리고 개별 국가 및 지역의 개발 우선순위, 목표 및 환경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다루도록 협약상의 공약 이행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e)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개도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들은 훨씬 더 취약하다. 적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절박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수준에서 취약성과 적응 문제 뿐만 아니라 적응 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통합하기 위한 능력배양에 대한 접근방식의 개발을 위해 효과적이며 성과에 기초한 조치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 조치에는 기후변화협약과 마라케쉬 협정에 들어있는 기존 의무사항의 충실한 이행도 포함시켜야 한다;

(f)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이며 적절한 대응책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배출저감 및 적응 조치에 관한 비공식 정보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g)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대응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에 대해 개도국 당사국의 구체적인 니즈와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h) 에너지 등 핵심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도록 국제협력이 추진되어야 하며, 추진방식에는 민간부문의 참여, 시장원리에 의한 접근방식 및 협력적인 공공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i) 기술이전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에너지, 수송, 산업, 건강, 농업, 생물다양성, 산림 및 폐기물관리와 같은 관련 모든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능력배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

경제적 다양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술발전은 해당 지역 국가 및 지방 소재 기관들의 능력강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j) 신뢰할 수 있고, 입수가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별 특수성과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k) 최신의 청정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입수가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에너지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공급을 다양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화석연료기술, 재생가능에너지기술 및 수력이 포함되고, 상호 동의하는 양도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도국 기술이전도 포함된다;

(l)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총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성을 느끼면서 모든 수준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며,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대한 국가 목표 및 지역의 자발적인 목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에너지정책이 빈곤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m) 부속서 I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상의 공약사항 이행을 가속화해야 하며,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과 관련해서는 부속서 II 국가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협약상의 최종 목표와 일치하도록 국가정책과 적절한 조치의 채택을 통해서 인위적인 온실가스배출량의 장기추세를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들은 뉴델리의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 보여준 선의의 협력 특히, 기술적 작업의 진전과 건설적 논의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총회의 Baalu 의장과 인도 정부 및 국민들이 보여준 정중한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

(자료정리 : 한국에너지협의회 이성룡 차장)